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이달의 캠페인 - 새로운 계절 다시 세우는 신앙 결심

◎ **사순절 2:**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삶속에서 절제와 경건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모집:** 바누아투 단기 선교에 참여하실 성도들 신청받습니다.

일정: 6월 30일-7월 7일 (7박 8일) 지역: 바누아투 삼마지역 및 주변 마을

훈련일시: 4월 25일-6월 20일 (매주 금) 오후 7시-9시10분 (8주)

대상: 고등부-장년부 회비: \$1000

◎ **감사:** 한인의 날 행사에 동참하여 연합함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성도, 지친 공동체 식구들을 돌보아주신 성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판매수익(\$1521.30)은 건축현금으로 드립니다.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참여:** 주보 1면 칼럼란은 누구나 동참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상에서 체험하는 느낌들을 글로 표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찬양대:** 오늘은 루마니아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연습하는 주일입니다.

건축현금: 2013년 12월 15일 - 2014년 3월 9일 \$1,411.30 총계: \$636,201.60

3월 새벽기도회 본문

7일: 삼상 17:12-27 작은 순종이 가져다준 큰 기회

14일: 삼상 19:1-7 참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21일: 삼상 21:10-15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28일: 삼상 25:1-13 어리석은 욕심은 친구도 적으로 만듭니다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말알장애우 봉사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 예 배 | 시 간 | 장 소 |
|--------|-------------|--------|
| 주일1부예배 | 주일 PM 1:00 | 본당 |
| 청년모임 | 주일 PM 3:00 | Chapel |
| 수요예배 | 수요일 PM 7:30 | 본당 |
| 새벽기도 | 금요일 AM 5:50 | Chapel |
| 아동부 | 주일 PM 1:00 | Chapel |
| 중고등부 | 주일 PM 1:00 | 별관 |

오시는 길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Rome 12:15

2014년 3월 16일 16권 11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첫사랑

입학한 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이다보니 기독교개론이라는 1학년 교양필수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던 저로서는 강의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담당하셨던 김중기 교수님이 내주신 첫번째 숙제는 아직까지 저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 숙제 제목은 “당신이 애인이 있다면 그 애인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제자가 누구인가 라든가 다윗의 생애를 써보라 든가 하는 문제를 기대했는데 참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몇일을 생각하다가 답을 장난식으로 써서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의 여러 숙제나 시험은 그냥 일반적인 성경지식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번째 숙제의 정답은 졸업할 때 까지도 몰랐고 예수님을 믿고 한참 후에야 왜 그 교수님이 이 문제를 새내기 대학생들에게 주었으며 왜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가를 깨달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답을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비싼 선물을 사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싶어요”, “만나러 가기 전에 머리 두번 감고 향수도 뿌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어요”.

저는 지금의 아내와 그때부터 사귀고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의 말에 100% 공감했었습니다. 버스를 태워주려다가 같이 버스를 타고 아내 집에 도착해서 또 다시 아내는 저와같이 저희 집으로 오고 참 헤어지기 싫어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부족했던 용돈을 다 털어서 선물을 사주어도 아깝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갑자기 그 교수님이 내주신 숙제의 정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그 교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려 하셨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지 않고 돈을 쓰지도 않고 살아왔었구나!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도 설레는 마음도 없이 왔었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기도로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때의 첫사랑은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기쁨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첫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것을 드러도 아깝지 않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 박덕철장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 전 주
- 예배로 부름
- 개 회 송
- 참회의 기도
- ※ 찬 송
- ※ 성 시 교 독
- ※ 신 앙 고 백
- 찬 송
- 대 표 기 도
- 성 경 봉 독
- 찬양대 찬양
- 설 교
- 찬 송
- 헌 금 기 도
- 교 회 소 식
- ※ 응 답 송
- ※ 축 도

반주자
 히브리서 4:15-16
 찬양대
 다함께
 35장. 큰 영화로신 주
 125. 사순절 2
 사도신경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박덕철 장로
 사도행전 22:12-21
 나무십자가 찬양대, 베트남공동체
간증이 있는 삶/이태한목사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인도자
 인도자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저녁 7시 30분 인도:이태한목사

- 찬 양
- 기 도
- 성 경
- 설 교
- 합 심 기 도
- 광 고
- 찬 송
-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임혜자 권사
 사무엘상 20:35-42
우정 어린 맹세/심창진목사
 인도자
 인도자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박병민 청년부장

◎ 3월 교회알지

사순절 첫째주일: 3월 9일(주일)
 향존직분자 기도회: 3월 29일(토요일)
 성찬주일: 3월 30일(주일)

◎ 3월 예배봉사가

예 배 안 내: 정진택/정옥자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준/김윤숙/장태옥/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이순옥 집사
 다음 주일: 김철재 집사
 다음 주일 청년부: 김승훈 간사
 3월 26일 수요: 박혜숙 권사
 3월 26일 애찬: 정혜숙 권사
 3월 30일 주일: 박병민 장로
 3월 30일 청년부: Seira 자매

금주의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 지역 사회를 잘 섬기도록
2. 사순절이 연례적인 절기가 아닌 개인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며 신앙성숙의 계기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도록
3. 교회학교 각 부서 선생님들이 기도와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지혜와 성령충만이 넘쳐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도록
4. 취업, 비즈니스의 어려움이 호전되고, 영적인 곤고함과 육적인 질병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정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선교와 증보기도

갈보리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맺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 사역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을 위해 적극적인 증보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체첸공화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소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 목요일, 러시아의 자치 공화국 중 하나인 체첸 공화국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를 만나 교제 했습니다(안전 문제로 이름을 밝히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WEC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의 준말) 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체첸으로 파송되었는데 추방 당하여 한국으로 돌아 왔다가 잠시 뉴질랜드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왜 추방당했느냐고 했더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말은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굳이 추측하자면 체첸 공화국은 이슬람 지역인데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일부 극단적인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 선교사라는 이유로 미운털이 박혀(?), 구실을 만들어 추방시킨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일 년 전부터 그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여 작년엔 미국인 선교사가 쫓겨 나갔고 이 자매를 비롯하여 한국인 선교사 몇 가정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두 가정은 한국을 방문 중이었기 때문에 추방을 면했다고 했습니다.

체첸 사람들은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는편이고 특히 결혼 사진 앨범은 아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것에서 힌트를 얻어 이 자매가 사진 기술을 배우고 장비를 구입하여 웨딩 앨범을 만들어 주면서 선교의 접촉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곳 앨범의 질은 아주 나후 한데 비하여 한국인 여성이 만들어주는 앨범은 자신들의 것과 질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에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선교 방법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생각과 함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정도구나 이 아이디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호주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가 러시아 대사관에 문의하여 다시 체첸에 입국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다시 같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교지를 옮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냘픈 여성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뜨거웠고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은 그 누구 보다도 깊었습니다. 바누아트 선교를 위한 훈련을 앞두고 또 하나의 좋은 동기부여를 받는 귀한 교제였습니다.

기도제목

1. 다시 체첸 공화국에 입국하여 하던 사역을 통해 계속 선교 할 수 있도록
2. 입국이 불허 된다면 또 다른 지역을 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3. 매일의 삶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충만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